

호남 최초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 도입

전주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 관련 업무협약 체결… 사고 예방 강화 · 신속 대응 기대

전주시가 시민들의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호남지역 최초로 스마트관제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은 기존 음성 기반의 앱으로서 이용자 신고방식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센싱 등 기술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급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 구축 △스마트관제 플랫폼 품질 및 성능 향상 운영·관리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이 도입되면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을 예방하고, 민의의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



전주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 양 기관의 승강기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관

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 도입 및 안전 관리 철저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 개선활동 동참 당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전북도 광역협의회, 함께 진행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회장 임종근) 산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김순정)은 지난 20일 전주역 마중길을 중심으로 2개조로 나뉘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전북도 광역협의회와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 유해행위 방지를 위해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홍보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적극 동참해 것을 당부했다.

비대식 광역협의회 관계자는 “청소년유해환경 현장순찰감시 활동은 자율정회를 유도하도록 계도·계몽하고 미개선 시 기관에 행정고발하게 되며, 김순정 감시단장은 “최근 들어 청소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 산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20일 전주역 마중길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전라북도 광역협의회와 함께 진행했다.

특히 모니터 활동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시정을 요구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순정 감시단장은 “최근 들어 청소



전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21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성평등’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평등’ 캠페인 전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김기본)는 지난 21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성평등으로, 블들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모든 사람이 성별에

평등 ‘물(水)드려요’ 등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김기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를 인식하고 없애려는 사회 환경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20일 조촌동주민센터에서 ‘구)자립복지재단 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옛 자립복지재단 부지 개발 주민설명회

전주시, 진입도로 개설로 장애인복지 증진 위한 후속사업 추진 도모

전주시는 지난 20일 조촌동주민센터에서 ‘구)자립복지재단 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개발부지 4곳과 국도 26호선이 연결되는 도로 변경 및 진출입도로를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오는 2025년까지 3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폭 10m에 218m 길이의 소로를 폭 12m에 683m 길이의 도로로 연장하는 변경계획과 옛 자립복지재단 부지에 10m 폭에 172m 길이의 내부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시청 민원실 1호 여권 신청

전주시, 여권 발급 업무 개시… 1호 신청자에게 기념품 전달

전주시청에서 발급하는 제1호 여권 신청자가 탄생했다.

전주시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본격적으로 여권 발급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가장 먼저 여권을 신청한 시민은 신혼부부인 송모씨 가족으로 어린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날 여권을 신청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으로 6시까지이며,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활명한 여권용 사진 2매와 신분증, 여권(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을 지참하면 된다.

민원실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활명한 여권용 사진 2매와 신분증, 여권(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을 지참하면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청 민원실 여권 업무 개시로 그동안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일부지역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써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소중한 봄에게
고창군수협 수산물을
선물해보세요!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김충 | 상임이사 - 김영식
이사 - 허행숙, 이봉남, 최경수, 윤도경, 황주동, 김원택, 김진근
감사 - 이성태, 송홍식

www.gochang-suhyup.co.kr

풍천민물장어

수협에서 인증한 민물장어 전용 양만장에서 치어부터 정성껏 1년간 길러내어 맛과 영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풍천 민물장어로 고소한 맛이 강하고 육질이 탱탱해서 씹히는 맛도 좋아요



지주식 재래김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김 포자를 대나무에 꽂아 밀물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때는 노출되어 광합성을 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적으로 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김 본래의 맛과 향을 살려낸 명품김이에요



바지락 (수확시기 : 4월~10월)

전국 바지락 양식 생산량의 절반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대표 바지락 원산지인 고창은 매우 적합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 조개의 육질이 매우 뛰어나고 맛이 좋아요

장어김 (063)561-5949 핸드폰 010-4390-5949
바지락 (063)563-2135 핸드폰 010 9322-2135